휴정기 끝 광주법원 이번 주 주요 재판 '속도'

'감사관 채용' 市교육청 직원 1심 선고 '위헌제청' 관건 백금렬 교사 2심 결심 '학동 참사' 대법・입찰 비위 항소심 등

하계 휴정기가 끝난 광주법원의 주요 재판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재개된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 독 재판부는 오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A 사무관은 채용에 관련된 발 언을 했다는 건 인정했으나, 적용된 혐의가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사무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에는 광주지법 형사4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금렬 교사에 대한 항소심 결 심 공판을 개최한다.

백 교사는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영 등포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참여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의미가 담긴 노래를 부르거나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 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형을 받

당심 재판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공무원의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헌제청하라고 촉구했으나, 재판부 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14일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련 2 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날 대법원 제1부는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 의로 기소된 현산·다원이앤씨 관계자들과 백솔

건설 대표 등 7명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현재까 지 현산 소속 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없으나, 법인에겐 2천만원의 벌금형이 별도로 내려진 상태다.

같은 날 광주지법 형사3부도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산 법인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진 행한다. 1심에서 현산 간부 B씨는 학동4구역 철 거 공사의 입찰 가액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현산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

19일에는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의 핵심 증인인 당시 수사 검사가 광주고법 형사2부에 출석할 예정이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에선 '가족여행'을 가 장해 일가족을 살해한 지모(49)씨에 대한 첫 재 판이, 25일 형사11부에선 허재호(83) 전 대주그 룹 회장의 탈세 혐의 속행 재판이 열린다.

강행 규정 '6·3·3 선고'를 또 한 번 유명무실하 게 만든 광주 지역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이어진다.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오 는 18일,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다음 달 8

두 의원은 모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 선) 과정에서 '불법 홍보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재영기자



광복80주년 '도전 자원봉사 골든벨'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도전 자원봉사 골든벨'이 지난 9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광 복절 관련 문제의 정답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애리기자

주말새 흑산도·홍도 200mm 이상 폭우

남부지역 집중…인명 피해 無 내일까지 최대 80mm 추가 예보

광주·전남에 또 한 번 물폭탄이 쏟아졌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 날 오전 7시까지 광주·전남 주요 지점 강수량은 흑산도가 226mm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홍도 206mm, 영암 187mm, 해남 184mm, 강 진 178.3mm, 완도 168mm, 진도 166.5mm, 장흥 157.6 mm, 여수 148mm, 보성 142mm 등 남부 지역을 중심

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광주의 강수량은 59mm에

시간당 강수량은 진도가 48.6mm로 가장 많아 8 월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많은 비가 내린 해남, 강진, 완도, 장흥, 영암 등에서도 31.5mm-46.5mm의 시간당 강수량을 기 록했다.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 광주와 달리 전남 지역에선 침수 피해가 잇따랐지만, 사망자는 없

이와 관련, 전남소방본부는 이날 정오까지 11 건의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활동 내용은 도로・ 주택 침수가 8건으로 최다였고 나머지는 토사 낙석 1건, 급·배수 1건, 기타 1건이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호우 특보가 해제됐지만, 비는 이번 주 내내 내리고 그치길 반복할 것으 로예보돼 주의가 요구된다.

11-12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0-60mm다. 전남 해안은 20-80㎜다.

13일 강수량은 아직이나 이른 오전부터 오후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26-29도에 머물던 최고기온 분포는 12 일 29-32도로 오르겠다. 13일은 28-31도로 예 /안재영기자

'尹 비상계엄 손배소' 광주 재판 10월 시작

10월21일 첫 변론 기일…제기 10개월만

최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 통령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 진 가운데 광주에서도 10월부터 관련 재판이 본 격적으로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오는 10월21일 광주 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이 지난해 12월17일 제기된지 10개월여만이다.

원고 측 무료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광주여 성변호사회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와 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동원 등으로 온 국민을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고

이와 비슷한 취지의 소송은 다른 지역에서 도 제기됐는데,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 결을 내렸던 터라 광주 재판의 결과에도 관심 이 모인다. /안재영기자

고흥 양식장서 외국인 근로자 2명 감전…1명 사망

고흥 한 양식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감 전돼이중1명이사망했다.

1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 시14분께 고흥군 두원면 새우 양식장에서 외국 인 근로자 2명이 감전됐다.

이들은 각각 태국과 베트남 출신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도중 태국 출신 근로자는 숨졌다. 베트 남 출신 근로자는 아직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근로자들이 3.5m 깊이의 양식장 정화시설 수중모터 정비 작업 중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재영기자

광주서 제습기 설치하던 60대 감전사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루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IRO

<u>아스트로</u>

광주 한 에어컨 판매점에서 제습기를 설치하 던 60대가 감전돼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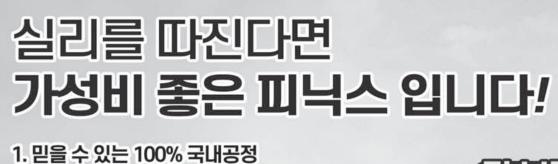
10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서구 쌍촌동 한 에어컨 판매 점에서 A (60대) 씨가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

A씨는 감전 화상을 입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제습기 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

경찰은 A씨가 전기 공구로 벽면 패널을 절단 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를 조사하고 있다. /주성학기자



- 2. 신속하고 확실한 A/S
-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할인 판매!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

www.sunparkgolf.com

